

권세도 vs 권오봉 맞대결

6·13 지방선거 표발 점검

■ 여주시장

여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와 무소속 권오봉 예비후보 간 맞대결 양상이다. 당초 권오봉 예비후보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구도'라며 불참을 선언하고 무소속을 택했다.

민주당 권세도 후보는 경찰 출신으로 조선대 법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권 후보는 "시민들과 마음이 통하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더 듣겠다"며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공약으로 '더 5대 프로젝트'를 내놔다. ▲더 풍요로운 여수 ▲더 매력있는 여수 ▲더 살고 싶은 여수 ▲더 살기 좋은 여수 ▲더 자랑스런 여수를 뜻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관광도시에 걸맞은 워터 프론트 개발, 여수공항을 남해안 관광거점 공항으로 육성, 엑스포 인프라를 활용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남양포차 운영 개선, 국제해양관광스포츠센터 건립, 친환경·휴양성 조성 및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양낚시터 조성 및 낚시대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중·고교 교복 무상 지원, 교사 수업 분석 시스템 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 도시재생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버스노선체계 전면 개편 등 복지공약도 내놔다.

그는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갈등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주변에서 '갈등의 해결사'라고 부른다"며 소통의 전도사임을 자임한 뒤 "여수시민 정원제를 도

■ 여주시장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름(나이)	권세도(59)	권오봉(58)
주요경력	조선대 법대 초빙교수	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역청장
주요공약	·워터 프론트 개발 ·마이스 산업 육성 ·국제해양관광스포츠센터 건립 ·해양 낚시터 조성 및 낚시대회 개최 ·읍면정 인선 주민참여제 추진	·여수선단 고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여수박물관 건립 ·한려대학교(여수~남해) 건립 ·에너지밸리 연계 에코지구 조성

민주 권세도, 여수공항 육성·국제해양관광센터 건립

무소속 권오봉, 여수박물관 건립·에코지구 조성 약속

입해 세대·지역·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시민참여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 참여를 통한 읍면정 인선도 약속했다.

무소속 권오봉 예비후보는 정통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과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거쳤다. 권 후보는 "선량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교육과 승진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남녀 차별 없는,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시민중심 3·3·3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3대 관광도시 ▲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30만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행정

혁신부분 개방형 감사관제와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선단 고도화와 국제 일부 지방세 전환 등 경제혁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교육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수박물관 건립, 한려대(여수~남해) 건립, 경도대교 국비 확보 등도 공약했다. 권오봉 후보는 "2020년까지 조성되는 에너지밸리 사업과 연계해 에코지구를 조성하겠다"면서 "에코지구 지정을 통해 정부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해 스마트시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에코지구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료비 걱정없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개 선거구 모두 민주 對 평화당 각축 예상

■ 전남도의원(여수)

여수에서는 전남도의원을 6명 선출한다. 전남도의회에서 여수 의석수가 가장 많다. 6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과 평화당 후보간 각축이 예상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앞서지만, 평화당은 대부분 현직 의원으로 인지도와 조직력이 탄탄해 어느 한 곳도 만만치 않은 선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후보는 6명 모두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힘있는 여당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평화당은 모두 단수 추천됐다. 평화당 후보들은 "정당의 색깔과 기호 번호가 아닌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을 보고 선

택할다"며 인물론을 호소했다.

제1선거구(돌산·삼산·남면·대교·월호·국동)에서는 민주당 이광일(53) 후보와 평화당 윤문철(69) 후보가 맞대결한다.

제2선거구(여서·문수·미평동)에서도 민주당 강문성(52) 후보와 평화당 최대식(60) 후보가, 제3선거구(동문·한려·중앙·충무·광림·서강·만덕동)는 민주당 민병대(55) 후보와 평화당 서정환(58) 후보가 경쟁한다.

제4선거구(소라·올촌·여천동)에서는 민주당 최무경(51) 후보와 평화당 주연창(50) 후보가, 제5선거구(화양·화정·쌍봉동)는 민주당 최병용(59) 후보와 평화당 박선애(여·54) 후보가 맞붙는다.

제6선거구(둔덕·시전·주상·삼일·묘도동)에서는 민주당 강정희(여·55) 후보와 평화당 서일용(54) 후보가 의원배지를 놓고

■ 여수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 선거구	이광일(53·민·전남도당 수석부대변인) 윤문철(69·평·전남도의원)
제2 선거구	강문성(52·민·전남도당 지역균형발전 전직위 위원장) 최대식(60·평·전남도의원)
제3 선거구	민병대(55·민·전 여수MBC 앵커) 서정환(58·평·전남도의원)
제4 선거구	최무경(51·민·전 여수시의원) 주연창(50·평·전남도의원)
제5 선거구	최병용(59·민·여수울지역외 부위원장) 박선애(54·평·소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제6 선거구	강정희(55·민·전 전남도의원) 서일용(54·평·전남도의원)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고 경쟁한다. 두 후보 모두 10대 전남도의원을 지낸 동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무안공항 노선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지적 “새만금 공항은 중복투자·공항정책 역행”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노선 확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 새만금에 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남권 공항의 수요 분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양철수·신동훈 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인포)' 연구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무안공항이 있는데도 새만금 공항건설을 추

진하는 것은 공항정책에 역행하고 공항 시설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된다”며 “서남권 공항 이용권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안공항에 다양한 국제노선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일본, 중국 위주 노선에서 탈피해 해외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노선을 확충하고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위한 극동 지역 국제노선을 개발·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제선 연결 기능을 하는 무안-인천, 무안-김해 노선 신설과 확산

공항 개항 후 무안-흑산 노선 개설로 무안공항을 허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저비용·소형 항공사 전진기지, 특별수송업체 전용공항, 항공산업 거점 육성 등을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제노선과 연계한 국내 항공 노선 환승 체계 구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건설을 통한 수도권·내륙 지역으로 접근성 개선, 여객권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진은 주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현안 공동협력 다짐 광주 100여개 문화·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가 24일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현안에 대한 공동협력 다짐하고 있다. (시민연대 제공)

광주 100여개 단체 ‘亞문화도시 정상화 시민연대’ 출범

광주지역 100여개 문화단체들이 광주 아시아문화수도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그동안 지역 문화현안에 대해 각 단체 입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이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에 공동협력,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허달용·최규철·류봉식·장세라·이하 시민연대)가 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조성사업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민사회의 이해요구가 달라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것에 대해 성찰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연대 기구를 구성하게 됐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조성사업의 정상화 등 중요한 현안들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며 "조성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로 여겼던 전당장 및 문화원장의 공모와 선일, 7기 조성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도시공사, 호두메마을 미분양주택 분양 재추진

전세임대 82세대 대상

광주도시공사가 미분양 세대의 전세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분양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은 광주도시공사가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동구 산수동에 95세대를 공급했으나 시민 선호도가 낮아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24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95세대가

운데 미분양에 의해 전세임대료 전환한 82세대에 대한 임대기간이 오는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분양 전환을 추진한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해 전용면적 85㎡ 70세대, 59㎡ 25세대 등 95세대와 상가 2세대를 공급했다. 하지만 95세대 중 13세대만 분양되면서 사업비 회수에 실패했다. 고층·고밀 개발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재개발방향을 제시해 학계 및 국토부등

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선진사례로 꼽혔으나 지역주택시장의 추세와 실수요자의 선호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사는 현 거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편의시설 보완을 추진하면서 오는 8월 31일 전세임대 계약자의 분양 전환에 나선 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자를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빼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GRAND OPEN

1군 대우건설 MOU 확정

시공예정사: **대우건설**

1040세대 (예정) 초대형 단지

3.3㎡당 700만원대 합리적 금액

동천산책로 1분 거리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동호수 선착순 지정 문의 061) **726-0600**